

광주경총 “광주신세계 확장 서둘러야”

광주시 등 인허가 조속 지원 촉구 고용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소상공인 상생 방안 대책도 요구

광주경총(광주경제총연합회)이 광주신세계 확장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주시 등 인허가 기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총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7년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부근에 조성될 광주신세계 프리미엄 백화점에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지역 경제계를 비롯한 지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인허가 기관인 광주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주 관문’ 광천터미널(우스퀘어) 현대화를 위해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1995년 4월 설립 후 지역

대표 백화점으로서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 요청에 따라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지역 현치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30여년간 지역 내 소비 촉진, 고용 창출 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경총은 “광주신세계 확장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건설·운영 단계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광주·전남 상권 형성을 통해 광주시 방문객을 증가시키는 등 지역 경제를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신세계도 광주·전남 지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상생 방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경총은 이어 “사업 계획 발표 1년이 넘었지만, 확장 사업에 진전이 없어 광주시가 모처럼 갖게 된 소비 증대, 고용 창출, 유통·문화 랜드마크 조성 기회가 날아가 버릴까 걱정이 앞선다”며 “광

주경총은 지역 경제 발전과 광주·전남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광주신세계 프리미엄 백화점 확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4조 4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쇼핑·문화·예술 복합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확장하는 사업 계획안을 제시해 지역 사회로부터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현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기존보다 세 배 이상 규모의 확장형 대형 백화점을 건립 계획을 밝힌 상태다. 여기에 광주 첫 5성급 호텔을 짓고, 광천터미널 현대화 사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계획 발표 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지역사회 일각에선 2015년 추진했다가 금호월드 상인의 반대로 대전에 빼앗겼던 ‘특급호텔 약속’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13일까지 ‘롯데웨딩페어’

30여 웨딩 브랜드 참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3일까지 ‘롯데웨딩페어’〈사진〉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봄을 맞아 혼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선물 큐레이션’을 중심으로 럭셔리 브랜드, 리빙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할인,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올해는 프리미엄 예뻐 및 참여 브랜드 수를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웨딩페어를 개최했으며, ‘프라다’, ‘브라이틀링’, ‘태그호이어’, ‘타임’ 등 3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광주점은 행사기간 중 ‘웨딩마일리지 추가 적립’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웨딩마일리지는 롯데웨딩멤버스 가입 후 9개월동안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금액을 적립하고, 누계 적립 금액의 최대 7%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웨딩페어 기간에는 웨딩마일리지를 최대 2배까지 적립한다.

또 양가 가족을 위한 선물과 상견례를 위해 예복 등 웨딩 상품을 강화하고,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한 ‘웨딩 큐레이션’도 마련했다.

대표 혼수용품인 가전 상품군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구매금액별로 웨딩마일리지 100만점을 추가 적립해주고, 구매금액의 최대 8.5%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 밖에 웨딩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는 오는 5월 6일까지 청과 선물세트 15%, 한우 선물세트 35% 등을 할인하며, 결혼 성수기인 4월 전후로 답례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롯데백화점몰에서 온라인 답례품 전문관도 운영한다. 답례품 전문관에서 30만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 금액대에 따라 웨딩 및 신혼마일리지를 최대 90만점 적립할 수 있다.

신현웅 광주점 영업기획팀장은 “이번 웨딩페어 행사가 고객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 걸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엄지네 포장마차’ 팝업…“새콤달콤 꼬막 비빔밥 맛 보세요”



광주신세계 ‘엄지네 포장마차’ 팝업스토어 직원이 손님에게 꼬막 비빔밥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0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서 유명한 ‘엄지네 포장마차’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엄지네 포장마차는 강릉시의 유명 맛집으로, 대표 메뉴로는 여수 청정해역에서 채취한 꼬막으로 만든 꼬막 비빔밥과 꼬막 무침이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스드메 바가지’ 막는다…공정위, 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 제정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도 명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자금보통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7월부터 은행 위법·부당행위 내부고발자 징계면제·감경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향

가담하고 제보 안 하면 가중제재

오는 7월부터 은행 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한 제보자(내부고발자)에겐 징계 면제나 감경이 적극적으로 고려된다.

금융감독원 보고 대상 금융사고 발생시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고 제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중 제재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임직원 등이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권과 은행권은 먼저 내부자

고발 제도라는 제도명을 준법제보 제도로 바꾸고,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이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율리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외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 제보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제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조처나 성과·동료평가 시 차별, 교육·훈련 기회 취소 등 불이익 조치 유형을 구체화해 금지하는 한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는 증명책임은 조치자에게 부과한다.

금융권과 은행권은 위법·부당행위를 했더라도 바로 제보한 경우 제보자 대상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억원 이상 금융사고 외에도 횡령·배임·공갈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등 금융권 보고대상 금융사고 발생시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했는데도 준법제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행위와 준법제보 위반을 합해 가중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은행권은 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이나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포상금 산정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보에 따른 포상금이나 구조금 신청이나 지급은 은행연합회로 일원화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3월 수입차 판매 2만5229대…벤츠, 1위 탈환

지난해 동월보다 0.1% 줄어

지난달 수입차 판매가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가 석 달 만에 다시 1위에 올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3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2만5229대로, 작년 동월보다 0.1%(34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전달(2만199대)보다는 24.9% 늘었다.

브랜드별 등록 순위에서는 벤츠가 6762대로 BMW(6378대)를 제치고 석 달 만에 1위를 탈환했다. 이어 테슬라(2591대), 볼보(1424대), 렉서스(1414대), 아우디(1100대), 포르쉐(1091대),

도요타(1033대) 순이었다.

연료별 판매량에서는 하이브리드가 1만5643대로 62%를 차지했다. 전기차 5658대(22.4%), 가솔린 3632대(14.4%), 디젤 296대(1.2%) 등이 뒤를 이었다.

차종별로는 벤츠 E200이 1926대로 1위에 올랐다. 이어 테슬라 모델3(1291대), BMW 520(1195대) 등이 많이 팔렸다.

국가별 브랜드 판매량은 유럽 1만8988대(75.3%), 미국 3555대(14.1%), 일본 2676대(10.6%) 순이었다.

지난달 BYD가 국내에서 10대를 판매하면서 KAIDA 국가별 통계에 중국도 추가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원·엔 1천원 육박

미 상호관계 달러 약세…1467원

3일 원/엔 환율은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 1000원에 근접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996.33원을 기록했다. 전달 같은 시각 기준인 977.77원보다 18.56원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27일(1000.71원) 이후 최고치다.

엔/달러 환율은 전달보다 2.25% 하락한 147.02엔으로 집계됐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계 발표로 미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며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엔화가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개장 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각 원/달러 환율은 전달보다 0.4원 오른

1467.0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달보다 4.4원 오른 1471.0원으로 출발했으나,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오후 2시40분께 1463.3원까지 내렸다가 마감 직전 소폭 상승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달보다 1% 가까이 하락해 102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장중 기준 지난해 10월 9일(102.441)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상호관계는 세계 경제에도 약세이지만 미국 경제에도 약세”라며 “환율은 상대 개념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우려 같지 않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5일 기본관계 10%를 먼저 부과한 뒤 9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점에서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코스피 ‘美 관세쇼크’에 2480대로 후퇴…코스닥도 내려

코스피가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계 발표에 2480대로 밀렸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68.43포인트(2.73%) 하락한 2437.43으로 출발한 후 하락을 줄여 나갔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6포인트(0.2%) 내린 683.49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6.76 (-19.16)
↓ 코스닥	683.49 (-1.36)
↓ 금리 (국고채 39년)	2.529 (-0.055)
↓ 환율 (USD) (오후 4시 38분 기준)	1464.10 (-2.50)